

마가복음의 예수님(54) -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막 11:27-33)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를 교회에 위임하셨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가 작동되는 영적 공동체이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권위가 잘 세워지고, 잘 시행되는 교회다. 그러나 병든 교회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처럼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지금도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1.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 6: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당시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하고 그들에게서 성전세를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라는 자가 성전에 나타나,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모든 영역을 내어맡기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31-32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내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대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들이 지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권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종교인’은 오직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그와 반면 ‘신앙인’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한다.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3. 그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데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유대종교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않겠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연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당시 대제사장들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태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베들레헴에 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말씀을 통해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자.

마가복음의 예수님(54) -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막 11:27-33)

1. 마음 열기 - 역사적 인물을 멘토 삼고 싶다면 누구를 택하고 싶나요?
2. 경배와 찬양 - 찬 80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떤 역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3)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1)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2)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며, 3)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게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3) “새가족 환영회”와 “성탄감사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